

‘후보단일화’ 안철수를 어찌할 것인가...김종인·주호영 고심

안철수·금태섭 출마판 커진 범야권 보궐선거판

국민의힘 ‘투톱’ 후보단일화 언급 자제하며 침묵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제1야당의 지도부 ‘투톱’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권 대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승부수를 띄우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제1야당의 투톱이 자칫 군소정당에 보궐선거 승리의 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자 복잡한 선택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성적을 평가하는 심판 성격이 짙은데다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군불을 때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대선, 6·13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여당보다 서둘러 경선 룰을 다듬고 선거 준비에 나선 것과는 다른 행보다.

당 지도부는 이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하면서 4·7재보선 체제로 조기 전환해 선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었지만, 안 대표가 “결자해지”, “정권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판이다.

안 대표 뿐만 아니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무게추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로 급격하게 쏠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먼저 떠운 안 대표와 달리 선(先) 통합 후(後) 경선을 바라는 국민의힘 간 살바싸움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후보단일화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대50에서 20대80으로 경선 규정을 바꿨지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야권 인사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나 다름없는 ‘100%

시민경선’이나 당을 구애받지 않고 범야권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경선(원샷경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이럴 때일수록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당내 공론을 모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이 나설수록 국민의힘 경선 대신 ‘후보단일화’ 판만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한 야권 인사는 “국민의힘은 연말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빨리 경선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공천관리위를 조기에 띄운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먼저 선수를 쳤다”며 “만약 이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얘기하게 되면 이쪽(국민의힘) 경선이 죽게 된다.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안철수 대표의 주도권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 안에 서울시장 후보군은 많지만 낙승을 가져다 줄 유력 주자가 없는 시점에 지도부가 선봉리 후보단일화의 운을 떼거나 논의에 나설 경우 당내 다른 경선 주자를 고사시키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당 차원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궤를 같이 한다.

성추문 논란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정에서 야권에 유리한 정치환경은 조성됐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안 대표에게 아직 입당을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는 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인지,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서 나온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대표와 대적할만한 중량감있는 후보가 등장하느냐 여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 전 시장으로서 안 대표가 ‘결자해지’라는 출마 명분을 선점해 다른 정치적 명분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선거에서 질 경우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이후로 실패가 누적됐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나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단일후보 가능성이 낮지 않고, 설사 최종 후



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높일 기회가 된다. 경선 과정에서 각종 무머를 적극 해명하면서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오히려 원외인사로서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여겨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나 전 원내대표의 출마 의지가 불투명한데다, 당내에 대권주자에 버금가는 후보군이 많지 않아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를 모색할 때까지 당내 안 대표와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더라도 물밑에선 국민의힘과 협상 창구를 가동하고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두 사람 다 사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이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접촉을 했다”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도 후보단일화를 위한 물밑 조율이 나 논의의 제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윤석열 탄핵’ 굶어부스럼...野 맹폭에 與 내부도 “실속無”

“더 많은 국민 다른 생각 가져...‘냉정한 질서’ 찾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직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은하 의원은 윤 총장을 야권 1위 대선주자로 지칭하며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

들어낸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현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 탄핵 절차도 부담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법무부 검사장제위원회가 ‘정치 2개월 징계’로 판단한 상황에서 현재가

과연 이를 탄핵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부론 탄핵론에 대해 지체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은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현재 탄핵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조언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서동용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

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김희재 의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희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데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